

## 제 16 권 위선

### 1. 위선의 큰 위험

출처: “How Is Hypocrisy Discoverable and Curable?” in *Puritan Sermons 1659-1689 in Six Volumes, Being the Morning Exercises at Cripplegate, Vol. 1,*

저자: 앤드류 브롬홀(1608-1662): 영국 청교도 목사. 그의 설교 "위선은 어떻게 발견되고 치유될 수 있는가?"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 앤슬리의 편집본, 『크리플게이트의 아침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

역자: 영지웅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눅 12:1).

위선이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고 버려야 할 위험한 누룩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위선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 만약 위선이 들러붙게 되면 주님에게 악취를 풍기게 되고, 주님의 가장 귀한 규례와 우리의 최고의 의무를 더럽힌다(사 1:11, 12; 66:3).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 대하여 슬픔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 같고, 일찍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호 6:4). 모든 것이 보이기 위한 것이고, 진실은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 발람, 예후, 사울과 같은 열심 있던 위선자들에게 파멸만이 있었으며, 다른 위대한 자질들과 업적들, 그리고 어떤 이가 생각하기에 위대한 희망조차도 다 무너졌다. “위선자의 소망은 무너지리라”(참조, 욥 8:13).

**위선이란 무엇인가?** 위선의 본질에 관한 많은 부분을 그 명칭에서 찾을 수 있다. 위선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말이나, 습관,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배우 또는 무대 공연자, 역할 수행자”를 의미한다. 히브리어는 사악한 사람 또는 속이는 자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위선자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사악하다고 불렀던 사람들,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정직했었던 욥이 위선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다.

위선이란 미덕이나 경건의 가면을 쓰는 것이며 악과 불경건을 감추거나 가리는 것이다. 그것은 가려진 악인데, 악은 감추고 덕만 드러낸다. 위선의 형식과 본질은 모조다. 그 목적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헛된 영광이며, 또는 어떤 이익 또는 세속적인 존경을 얻는 것이다.

위선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척하며 선한 사람인 양 행동하는 노골적인 위선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자신도 속는 몸매 젖은 숨겨진 위선도 있다. 이런 경우는 위선자 자신도 자신의 위선을 알지 못한다. 이런 경우로는,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들”(눅 18:11, 마 25:2),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지 않는 모든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런 위선은 교묘한 악이요, 비밀스러운 독이요, 밀접한 전염병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위선자처럼 영적으로 파산하거나 망하지 않은 것은 오직 무한한 자비와 은혜다. 우리가 위선을 피할 수 있다면, 그래서 실로 진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선의 누룩"이 주는 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위선의 누룩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위험하기에 목사들과 성도들이 우선해서 경계해야 하는가?

### 1) 위선은 큰 위험이다

(1)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겠는가?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노라”(렘 17:9-10). 주님 외에는 마음의 깊은 곳과 기만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마음속에는 세상의 모든 위선, 즉 교만, 헛된 영광, 색욕, 세속적인 지혜를 먹이고 조장하는 욕망과 애정이 깃들어 있다. 만약 이것들이 없다면, 위선적인 삶도 없을 것이다.

(2) 악마는 밤낮으로 위선의 심지에 불을 지필 기회를 본다. 그는 그 목적에 적합하며 불결한 마음을 가진 자를 보면 위선의 거짓 열매를 맺으려는 맹렬한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는 간계와 속셈과 미끼와 덫을 가지고 있다. 그는 거짓된 마음을 향해 던질 거짓된 길과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취향과 거짓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다. 이제 악마와 그 사람이 그런 목적에 동의하면 그들은 반드시 위선을 행하게 될 것이다.

(3) 우리도 위선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무서운 실례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 위대한 예언자 발람, 그리스도와 친밀했던 사도인 가룟 유다, 사울, 예후, 헤롯, 아그립바와 같은 유명한 왕들, 탁월했고 확신이 넘쳤던 다섯 처녀들, 분명한 개종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믿음을 고백하였던 알렉산더와 데마!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한다.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실패하지 않으려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는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 2) 위선이 야기하는 큰 위험이 있다

(1) 모든 행한 일을 다 잃는다. 그리스도는 부자 청년에게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진실성이라고 말하실 것이다(눅 18:22). 당신도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모든 일을 사람의 칭찬을 위하여 행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보상을 받았고 충분히 받았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

(2) 소망들, 위대한 소망들, 영광과 하늘의 소망들, 영원한 비참으로부터의 탈출이 전부 좌절로 마칠 것이다. 이 모든 소망은 항구에 거의 도착한 배가 파괴되듯 "위선자" 앞에서 반드시 사라진다(욘 8:13). 그들이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동안 그들의 소망은 영원한 두려움과 절망으로 사라진다.

(3) 위선은 온 세계 가운데 완연히 드러나고 발각된다.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으니"(눅 12:2). 거룩하게 보이게 했던 가리개가 제거되고 위선적인 얼굴이 드러날 것인데 이는 실로 두 배의 죄악이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기만하려고 한 것 때문에 그 비참한 위선자는 영원하고 견딜 수 없는 혼란에 빠져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악령들에게 모욕당하고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4) 지옥에서 그 위선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눅 12:47).** 그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하는 척만 하고 결국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눅 12:47). 다른 사람을 지옥에 갈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더 깊은 지옥에 가게 되고, 그가 저주한 사람들보다 더 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소위 저주받은 세리보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더 비참하여질 것이다. 지옥은 위선자들의 분깃이지 않겠는가?(마 24:51). 그들이야말로 지옥의 진정한 주인들이며 다른 이들은 그저 세입자나 동거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옥 내에서 더 험한 곳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그들이 있게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하늘에 가까이 있었을수록 지옥의 더욱 험한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옥 중 지옥에서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확실히 위선은 위험하다. "위선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의 누룩"의 끔찍한 위험을 주의하자.

**적용:** 나는 이 교훈을 위해 한 가지를 권면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문 안에 있는 "주의"이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기" 위해 당신은 철저한 경계와 근면과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나는 당신이 교리에 있어서 얼마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사상에서 발전된 교리들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원천으로부터 유래한 교리들을 경계하라. 말씀과 유사하거나 반대되는 전통, 예언, 충동을 경계하라. 의지의 힘에 대한 맹신, 미신, 자의적인 겸손을 가르치는 교리들,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닌 외적인 의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교리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교리들, 맹목적인 복종과 맹신을 유도하는 교리들을 경계하라.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교리들이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사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참으로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과 원칙들은 말과 삶에 대단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비난하기 쉽다. 위선자는 다른 사람의 위선은 싫어하면서 정작 그 위선을 자신에게는 용납한다. — 존 플라벨

## 2. 위선자의 특징

출처: 1859년 2월 6일 주일 아침, 영국 뉴잉스톤에 있는 로열 서리 가든 음악홀에서 전한 설교

저자: 찰스 스펀전 (1834-1892) : 영국의 영향력 있는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비돈 출생. 그의 사역 동안 스펀전의 설교는 63권 분량이다. 2천에서 2천오백만 단어의 설교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제9판의 27권에 해당되며 기독교 역사상 단일 저자로서는 가장 큰 책전집이다.

역자: 김선형

“그 기쁜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5)

이 시대는 가짜들로 가득하다. 가식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눈에 띄는 적은 없었다. 두려운 것은, 꾸밈없는 진실을 사랑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조차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는 꾸밈없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으려 한다. 당신이 런던 거리를 걸어보면 모든 매장들이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문들은 마호가니와 희귀한 나무들로 만들어진 것을 볼 것이다. 당신은 이렇게 귀한 재질이 희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도금으로 칠해져 있고 광을 내고 있다. 나는 그것이 단지 내적인 악의 외형적인 모양만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이런 현상은 어디나 존재한다. 엄청난 비용으로 문양을 넣고 칠하고 도금한다. 모조품은 마침내 너무나 뛰어나서 그것이 모조품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다.

모조품이 상당히 진품 같아서 그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한때 심한 편견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저울질 되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당시의 정통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미쳤다. 그러나 자비와 관용적인 이 시대에서는 모조품을 진품으로 허용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내적인 실체만큼이나 유익하게 여긴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 하라”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박해의 시대에는 설교자가 이 교훈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화형대가 활활 타오르고 고문대가 작동하는 시대에는 위선자들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런 고난은 위선자들을 철저하게 걸러낸다. 가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고통, 죽음을 견딜 수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고난이 없는 시대에서는 종교적인 것이 존중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존중을 받는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을 때에는 설교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의 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그의 경건이 결국 겉으로 보이는 위선이고 그의 고백은 텅 빈 허영처럼 되지는 않을까 몹시 불안해한다. 거짓된 자는 끊임없이 부지런히 자신을 포장하지만, 진실한 자는 때때로 자신의 거짓됨을 의심한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여! 만일 당신이 지금 자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면 아마도 진실의 소

리가 당신의 마음과 폐부를 살펴보고 확인해 줄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내가 흑독해 보여도 날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오히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선생님, 저는 제 영혼에 관해 확실하게 해 두고 싶습니다.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위선의 흔적조차 있다면 있는 그대로 말해주세요. 저는 여기에 앉아 제 마음에 위선의 흔적이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만일 제가 불속에서 정금처럼 나올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위선자의 특징:** 우리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위선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생생한 묘사를 봤는데 이보다 더 나은 설명은 없을 것이다.

**위선자는 그의 언행이 서로 불일치한다.** 예수님은 “그들은 말은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는 천사처럼 말할 수 있고 아주 유창하게 글을 인용할 수 있다. 그는 모든 신앙 문제, 즉, 신학적인 교리이든 형이상학적인 질문이든, 혹은 실천적인 어려움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 많은 것을 알려고 하고 그가 일어나 말을 할 때는 당신은 그의 우월한 지식 앞에 무지함과 창피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살펴보라.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그의 행동은 그가 말한 것과 전혀 상반된다. 그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따르던가? 아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해보라고 말한다. 그는 실천을 위한 멋진 척도를 세우며 그 척도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준이다. 하지만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의 집을 따라가 보고 장터로 그를 따라가 보라. 상점에서 그를 보라. 그의 설교를 반박하고 싶다면 그의 삶을 볼 때 아주 쉽사리 반박할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혹시 이런 모습이 당신의 경우는 아닌가?

우리는 부끄럽더라도 우리 각자의 삶이 얼마나 우리의 고백과 모순되는지 고백해야 한다. 우리는 이로 인해 눈시울을 붉히고 슬퍼해야 한다. 오! 독자들이여, 내 말을 믿으라.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말은 누구나 하지만 행동은 어렵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입만 경건한 것은 전혀 은혜가 필요 없다. 위선자의 첫 번째 표징은 그의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는 것이다. 당신도 그러한가? 만일 그렇다면, 위선에 대해 가책을 느끼며 머리를 조아리고 그 죄를 고백하라.

**위선자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옳은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위선자는 자선행위를 할 때 나팔을 불고, 기도할 때는 길모퉁이에서 한다. 그에게 있어서는 남이 모르게 선행을 행하는 것을 악으로 여긴다. 수천 개의 눈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런 선행에서는 어떤 매력도 발견하지 못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이팅게일과 같이 밤에 노래한다. 반면 위선자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들리도록 낮 동안 그의 모든 노래를 부른다. 칭찬을 듣는 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묘약이다. 그는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느낀다. 어떤 선행에 대해 사람들이 비난하면 그는 당장 그 선행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 그의 법은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구하는 것이며 그가 덕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얻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내일 악이 인기를 끈다면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악랄해질 것이다. 박수갈채야 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경우는 아닌가? 우리 자신에 대해 솔직해지자. 만일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누구도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비밀로 간직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기도할 때 남몰래 드리는 울부짖음과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골방에서 기도하는가? 만일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눈을 감고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되어도, 우리의 행동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이 나를 이끄는 법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과 양심에 이끌려 산다고 선언할 수 있는가? 아침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거나 비난이 두려워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음에 새기라. 사람의 칭찬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상한 동기로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자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옳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승인이 찍힌 도장을 보았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위선자가 아니다. 당신은 어떠한가? 솔직히 말해보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책망하듯 자신을 판단해보라.

**다시 말하지만, 위선자들은 감투, 명예, 그리고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을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랍비(선생)라고 불릴 때 행복하였다. 그는 유대교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자신의 위대함을 느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투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모욕적인 이름을 자신의 특별한 호칭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감리교라는 용어는 박해를 받던 시대에 생겨났다. 그런 칭호로 불린 선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당신은 모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감리교도(방식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호칭이 될 것입니다.” 청교도라는 이름은 모든 이름 중 가장 천한 이름이었다. 그것은 언제나 술꾼과 욕쟁이가 신성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호칭이었다. 경건한 자는 말한다. “좋습니다. 저를 청교도라고 부르세요. 만일 이것이 비난의 이름이라면 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 왔다. 그는 그의 대적이 악의로 붙인 이름을 스스로 택했다. 반면 위선자는 그렇지 않다. 그는 가장 영예로운 이름을 취한다. 그는 언제나 최고로 존중받는 집단에 속하기를 바라며 그 집단에서 가장 영예로운 감투를 차지하길 바란다.

자, 당신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명예나 감투를 구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발로 짓밟고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란 칭호 외에 더 높은 감투를 구하지 않으며 또한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그에게 배우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명예도 구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멸시받은 목수의 아들의 추종자가 될 의향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당신 안에는 거의 위선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의 존중을 받기 때문이라면 당신의 신앙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위선자의 또 다른 특징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이다.** 오늘날 위선자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의식(儀式)과 관련한 생각에는 집착한다. 안식일 엄수주의는 위선에 아주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행위가 자기 의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에게는 혐오를 나타낼 공격 대상이 된다. 주일에 행하는 자비의 행위와 기쁨의 미소가 위선자들이 보기에는 정죄 받아 마땅한 죄악이 된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리스도도 일을 하셨기에 친절과 자비와 자선을

배푸는 일은 안식일의 의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하면 위선자는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한다. 의식적인 준수에 관한 사소한 위반 행위도 위선자의 눈에는 아주 큰 죄가 된다. 그러나 가련한 그 위선자는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에 힘쓰기에 이 부분에서도 작은 일을 가지고 당신을 흠잡고 비난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 위선자가 속여 빼앗으며 물건을 속여 팔며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자임을 안다.

나는 항상 사소한 것에 신경 쓰고 작은 차이를 늘 찾아내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위대한 일들보다 작은 일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항상 자신을 의심하라. 만일 과부를 속여 빼앗는 것보다 성찬식에 불참하는 것이 양심에 더 찢린다면 당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자는 분명 속이는 자이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이 하루살이를 걸러 내길 바란다는 점을 잊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나중에 낙타를 삼키지는 말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를 좋아한다면 까다로워져라. 만일 어떤 것이 조금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는 분명 틀린 것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롬 14:23). 만일 당신이 그것을 행할 수 없고 또한 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믿는다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도 당신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라. 당신의 와인 속에 있는 하루살이들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걸러내라. 없애 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후 입을 열어 낙타를 삼키지는 말라.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독한 위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을 계속 읽다 보면 당신은 이 사람들이 신앙의 내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단지 외적인 부분만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마 23:25). 멋지게 꾸며진 많은 책들 중에는 쓸 만한 내용이 없는 것들도 있다. 매우 영적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 속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있다. 당신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아마도 당신이 자신을 잘 안다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치밀할 정도로 종교적이고, 은혜의 수단에 하나도 빠짐이 없으며, 모든 형식과 의식을 잘 따르고 외형적인 명령이라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 탁월할 정도로 경건한데 이는 그들이 철저하게 성소의 걸만 신경 쓰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 문제는 소홀히 한다.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는 것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렸다는 사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예배당에 간 것으로 만족을 느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 교제를 나누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아니, 그들은 알맹이는 찾지 않고 껍데기만 지닌 것으로 만족한다. 알맹이는 어디론가 잃어버리고 껍질, 겨, 그리고 지푸라기로 붙들고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느낀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마치 밖의 간판에는 천사가 매달려 있지만 그 안에는 악마가 있는 여관과 같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많다. 그들은 훌륭한 간판을 걸기 위해 많은 신경을 쓴

다. 사람들은 그들이 철저한 신앙인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면은 악으로 가득하다. 나는 종종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실언을 하는 것을 듣는다. 그들은 “아, 불쌍한 사람 같으니, 그는 지독한 술주정뱅이야. 하지만 근본은 착한 사람이야.” 자, 롤랜드 힐(Rowland Hill) 경이 말하던 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걸은 악한데 속은 선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믿기 힘든 말이다. 사람이 과일을 시장에 가져다가 팔 때 윗 부분에 썩은 사과를 놓으면 소비자들은 그것을 보고 그 밑에 괜찮은 사과들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한 사람의 외적인 행위는 일반적으로 그의 내면보다 나은 편이다. 창문에 진열된 것보다 더 좋은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내가 바깥보다 내면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할 때, 외면은 버려두라는 말은 아니다. “잔과 대접의 걸을 깨끗이 하라.” 즉,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깨끗하게 하되 속을 깨끗이 하는 것 역시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안을 먼저 보라.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나는 중생했는가?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갔는가? 사탄의 왕국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에 들어갔는가? 예수님의 곁에서 그와 연합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마음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면 내 외형적인 삶이 어떠하든 나는 자기기만에 빠진 자이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이다. 그리고 위선자들이 받을 화가 내게 미치게 될 것이다. 나는 잔과 대접의 걸은 깨끗이 하였지만 안은 매우 악하다. 이 말이 당신에게 와 닿는가? 이것이 개인적으로 와 닿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망상을 끊어주기를 바란다.

**위선자의 또 다른 표징은 그의 신앙은 장소와 시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7시에 기상을 하고 15분 정도 묵상을 한다. 그는 소년처럼 아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보냈다”라고 혼자 말한다. 그 후 그는 30분 동안 더 경건하게 보낸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 그가 부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이 그를 존중하게 될지 장담을 못 하겠다. 그의 하인 중 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는 화를 내며 막말을 쏟아낸다. 그는 풋내기로 여겨지는 고객이 들어오면 그의 경건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속임수를 사용한다. 만약 그가 하루 중 어느 시간이라도 이런 기회를 얻으면 더러운 속임수를 사용할 것이다. 그는 아침에는 읽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자처럼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진실하지 않다. 그는 “사업은 사업일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심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신앙은 한쪽으로 제쳐 둔다. 자, 저녁시간이 되면 당신은 그가 또 무척이나 경건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아내도 가족도 교회도 그를 볼 수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그는 극장에 간다. 그러나 만일 목회자의 귀에 그 정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그가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반면 교회의 눈도, 친구들의 눈도 그를 보지 못한다면 그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극장에 갈 것이다. 좋은 웃은 훌륭한 신사를 만들고 멋진 장소는 멋진 위선자를 만드는 법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의 양심에 충성된 자는 항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당신이 내 집을 은과 금으로 채워도 나는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내게 제국의 높은 지위와 큰 부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내 신앙에 먹칠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부추기는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

들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말한다. 당신은 그가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거짓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당신은 그가 연약하지만, 고의적인 욕망과 계획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초지에서뿐 아니라 진흙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당신은 햇살에서뿐만 아니라 빗속에서도 그와 함께 걸어야 한다. 당신은 좋은 날씨에서처럼 폭풍 속에서도 그와 함께 가야 한다. 누더기 옷을 입은 가난한, 그리고 굴욕과 모욕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을 수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은으로 만든 신을 신은 그리스도와는 걸을 수 있어도 그분이 맨발로 가야 할 때 그를 버린다면 당신은 위선자다. 우리 중 이런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언제나 한결 같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함께 하는 사람들과 시대에 따라 변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위선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 되게 하실 것이다.

또 다른 위선자의 표징이 있다. 이제 그 매질은 내 등과 우리 대부분의 등에 떨어질 것이다. **위선자들과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엄격하고 그들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다.** 위선자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봤는가? 내가 그를 “비열한 거지 같은 놈”이라고 말하면, 그는 “아니야, 난 그렇지 않아. 나는 겸소한 사람이야”라고 말한다. 내가 그에게 “너는 정직하지 못한 도둑이야”라고 하면 그는 “아니야, 나는 시대에 기민하고 영리할 뿐이야”라고 대답한다. 내가 그에게 “그래, 하지만 너는 자랑을 일삼고 자만에 빠져있어”라고 말하면 그는 “아! 나는 단지 올바르고 남자다운 거야”라고 말한다. 내가 다시 “아, 하지만 너는 아침하기를 좋아하고 비굴한 놈이야”라고 하면 그는 “아니,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는 것뿐이야”라고 말한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악덕을 미덕처럼 보이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와 반대되는 법을 적용한다.

그에게 진정으로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면 그는 “나는 그의 아침하는 태도가 싫어”라고 말한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그는 “아! 그는 뻔뻔한 사람이야”라고 말한다. 그에게 너그럽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돈을 쓰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면 그는 “경솔하고 현명하지 못하군. 낭비벽이 심해! 그 사람은 자기 주제를 몰라”라고 말한다. 당신이 미덕이라고 말하면 위선자는 그것이 악덕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의사가 된 위선자를 보았는가? 그의 눈에는 그 영혼에 하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만큼 커다란 들보가 있다. 그럼에도 그는 매우 능숙한 안과 의사처럼 행세한다. 그는 티끌, 즉 태양의 빛에는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티끌이 눈에 들어간 불쌍한 형제들을 기다린다. 눈에 들보를 지닌 그 친구를 눈여겨보라. 그는 아는 체하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 티끌을 뽑아낼게요!”라고 소리친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 7:5). 타인의 미덕은 악덕으로 만들고 자신의 악덕은 미덕으로 만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려면, 내가 당신의 영혼은 어떠한지 말하겠다. 그 모습은 정반대다.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지만 자신에게는 관용하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만일 죄를 지으면 그것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는 다른 이에게 “아! 저는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나는 정말로 당신의 죄를 볼 수 없는데요. 당신 안에 어떤 죄도 보이지 않는다고요. 저도 당신처럼 기록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외친다. 그러면 그는 “아네요. 저는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

저자 존 번연은 머시와 크리스티나를 묘사하는데, 그 아이들은 물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은 후 물에서 나올 때 서로 둘 다 아름답게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너는 나보다 더 아름다워!”라고 말했고 또 다른 아이는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로는 자신들의 흠에 대해 한탄하면서도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칭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하지만 위선자의 정신은 그 반대다. 그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형을 구형한다. 자신은 예외이며 왕이다. 그는 법도 모르고 양심은 잠들어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를 자신은 쉽게 저지른다.

~~~~~

위선은 자연적으로 모든 땅에 싹트는 잡초이다. 가장 멋진 마음이라도 위선에서 완전히 깨끗하거나 자유롭지 않다. — 존 플라벨

### 3. 위선자와 그리스도

출처: “A Cabinet of Jewels” in *The Works of Thomas Brooks*, Vol. 3, reprinted by The Banner of Truth Trust.

저자: 토마스 브룩스(1608-1680): 비국교도 설교자이자 회중주의 교회 지지자.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이매뉴얼 칼리지에 입학함. 『사탄의 책략 물리치기』, 『고통 속에서도 잠잠히 있는 그리스도인』 등 다수의 저자임. 잉글랜드의 런던에 있는 번할 필드에 문함.

역자: 박기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거룩함, 주의 사역과 주의 직분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관계, 양육을 삶의 최대, 최고, 최종 목적으로 여기는 위선자는 결코 없다. 위선자에게는 그가 바라는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과 명예가 전부다. 그는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사랑한다(요일 2:16). 위선자의 목적은 악하고 이기적이다. 위선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수고의 목표일 수는 있지만 정작 최고의 목표는 자기 자신이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에 자신보다 더 높은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 위선자는 자기 영광이 그의 모든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행위의 시작이며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내가 유익과 명성과 영광과 기쁨을 얻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타락한 위선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위선자가 경건을 이득의 방도로 삼는 동안 그는 매우 경건한 자처럼 보일 것이다.** 그는 거룩함이 행복과 위대함에 이르는 수단이 된다면 매우 거룩한 척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종교적인 사악함은 결국 두 배로 그를 저주할 것이다. 자기사랑(self-ends)은 모든 위선자들의 행위 원리다. 위선자들이 종교를 취함은 자신의 유익을 섬기기 위함이고, 자신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함이다. 이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롬 16:18, 빌 3:19). 위선자는 항상 자신을 그의 모든 섬김의 목적으로 둔다. 그러나 위선자는 알아야 한다. 비록 그들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고 풍성한 의무를 행한다 해도 그들의 목적은 이기적이고 세상적일 뿐이며, 그들의 모든 가장된 행위와 허식은 하나님의 눈에는 매우 혐오스럽다는 사실이다.

**위선자는 비뚤어진 눈과 목적과 의도로 모든 일을 행한다.** 발람은 매우 경건하게 말했고, 여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향한 것은 불의의 삶이었다(민 22:23, 뵤후 2:15).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의 복수를 그 악한 집에 시행하였다. 그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바알의 모든 우상을 철저히 파괴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단지 그의 나라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왕하 10장). 아합과 니스웨 사람들도 베옷을 입고 금식했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왕상 21장, 욘 3장).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은 70년간 울며 금식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닌 단지 그들의 사슬을 벗기 위한 회개일 뿐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개였던 것이다(스 7:5-6). 그들의 행위가 고귀한지 천박한지, 바른 것인지 더럽히는 것인지, 그 머리에 영광을 가져오는지 불명예를 가져오는지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단지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만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양심의 소리를 막거나 징계의 막대기를 피하기 위

해, 또는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만 모든 의무와 성김에 힘쓰는 자는 위선자다.

그러나 지금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을 주목하자. 그는 기도와 경청과 드림과 금식 및 회개와 순종 등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최고의 목적이며 그의 최종 목적이다(시 115:1, 살전 2:6).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다면 자신이 무시당하고 욕을 먹어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과 그의 영광만을 향한다. 이러한 진실함만이 개인적이고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영혼을 고양시킨다(계 9:9-11).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자량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머리에만 왕관을 씌운다. 그는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고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의 종 또는 발판으로 여긴다(롬 14:7-8).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거니실 땅이 되길 원한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만을 원하고 바란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계획과 바람과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전 10:28, 계 12:11). 그 진실한 영혼의 매일의 언어는 이것이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시 115:1).

영광은 하나님의 권리이며 하나님은 그 권리에 서 계신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받아야 할 권리와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린다. 그러나 청하건대 나를 오해하지 말라.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의 모든 행위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것은 지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복이지만 천국이 오기 전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 최상의 상태의 마음 안에도 저급하고도 이기적인 의도와 목적이 꿈틀거린다. 그러나 모든 진실한 마음은 그러한 상태를 경험할 때 울며 신음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의 상태를 슬퍼하며 호소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영혼에서 제거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며 이를 위해 매일 노력한다. 그러나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와 일들의 경과를 살핀다면, 그 모든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 위에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된 목적으로 정한 자는 모든 세속적이고 저급한 의도가 자신의 주된 목적에서 점점 제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속죄 및 그의 공로로 인한 의롭다 하심과 구원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위선자는 아무도 없다. 위선적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며 금식했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의로움을 의지하며 안식을 누렸다(마 6장, 눅 18:11-12). 계시록 3장 16-18절의 말씀을 숙고해라.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자신의 의로운 행위와 의무 위에 놓음으로 영원히 멸망하였다.

위선자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만 결코 그리스도의 의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그가 행한 의무로 인해 천국에 많은 재물을 쌓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거미줄 같은 자기 의로 옷 입힌다. 그는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영광스런 주님의 의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이에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등한히 여긴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

우려고 함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롬 10:3). 구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인데, 이는 복음 안에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제공된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를 생각하거나 유념하지 않는다. 위선자의 의는 더러운 옷처럼 불완전하고 부정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를 의지하는 그들은 영원토록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 오 주님! 자신의 행위와 공로의 날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들 중에 누가 구속자가 필요하다고 말할까요? 만일 사람이 의무를 행함으로 무한한 진노를 누그러뜨리며 무한한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작별하고 의무는 환영할 것이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거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을 속임으로 영원토록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과 같은 자신의 의의 옷을 위선자의 의무라는 낡고 오래된 옷에 덧 기우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계 19:7-8). 위선자가 신뢰하는 자기 의는 더러운 옷일 뿐이다(잠 21:27).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를 부인한다.** 그는 육신 안의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고 부인한다(빌 3:3)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그는 자기 의를 개들이 먹는 배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는 자신이 행한 것, 즉 그의 손이 행한 일에 대해 “우리의 신”(호 14:3)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본성의 거룩함과 그의 공의의 통치와 그의 율법의 엄위함과 그의 진노의 무서움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 의가 아닌 더 영광스러운 의가 필요함을 확실히 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에 최고의 가치와 무게를 둔다. “내가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시 71:16).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사 61:10). 오, 그렇다면 이 귀하고 멋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랴(사 28:16)!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확실한 토대로 삼고 의지한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사 45:24).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지극히 영광스럽고 빛나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빌 3:9).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장래의 노하심에 대한 유일한 보호처로 여긴다(살전 1:10). 장래의 노하심은 크고 완전하며 무한하고 영원한 진노다. 여기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것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알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을 입는다(롬 13:14).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위선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의보다 더 즐거워하거나 흠족해하거나 기뻐하거나 만족하지 않는다. 위선자는 많은 의무 속에서 그것을 행하며 살지만 의무를 벗어

나지는 못한다. 그는 평생 일하며 그의 수고 안에서 안식한다고 여기지만 그는 점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위선자는 결코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즐거움 안에서 안식을 충만히 누리거나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 위선자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갈망하거나 얻기 위해 신음한 적이 결코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만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서 자랑해본 적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구해줄 이로 갈망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해줄 이로 의지한 적이 없다. 위선자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린 적이 결코 없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광선이 위선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살전 1:10). 위선자는 그리스도에 의해 치료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길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만족과 기쁨을 결코 알지 못한다. 그의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따라 움직이는 적이 없다. 하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 영혼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비참하고, 저급하고, 초라하며, 불쾌하고, 공허한 곳이 된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영광스런 다이아몬드 반지의 번쩍이는 다이아몬드와도 같다(빌 1:21, 3:7-10).

**이 세상의 위선자들은 복음의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영접하지 않는다.** 성부께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제공하시며 하신 약속들은 이런 것들이다.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마 16:24).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는 그의 모든 직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온전한 마음은 우리의 모든 영혼의 능력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시하신다. 구원은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기에 그리스도의 한 직분만으로는 완전히 성취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속하고 중보하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신다. 사도는 이것을 정확히 선포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지자로 깊게 생각하라. 그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라, 그는 우리에게 의와 구원이 되신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라, 그는 우리의 성화와 거룩이 되신다.

**위선자는 그리스도를 진노와 저주와 지옥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제사장으로 영접하길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 선지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영접하지는 않는다.** 많은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지 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길 원할지 모르지만, 통치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리스도로는 영접하지 않는다.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눅 19:27)···“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요 1:11). 위선자는 그리스도를 그의 모든 직무가 아닌 한 가지 직무로만 영접하길 원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 화평을 깨뜨릴 것이다. 분명히 그리스도

는 한 직분만이 아닌 모든 직분에 있어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며 흠모할 만하시고 유쾌하시며 높으시고 뛰어나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직분 모두를 인정하지 않는 위선자들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리스도와 그의 직무들은 구별되나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전 1:13). 그리스도의 직분을 나누려는 많은 이들은 스스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유익과 이득을 놓치고 만다.

위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행복을 나누어 갖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공유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길 원하지만 진심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들은 주의 보혈로 구원받길 원하지만, 그의 규에 순종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위선자들은 복음의 특권을 좋아하지만, 내적이고 영적인 복음의 성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직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를 인정하며 그와 교제한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도 받아들인다. 그는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통치자로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골 2:6).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분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보좌 위에 앉으신 왕으로 영접하였다(고후 4:5). 성부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제시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선포한다. 이에 따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그리스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행 5:31). 위선자에게는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그는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명령하시는 그리스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위선자의 저주받을 죄를 입증할 것이다(요 3:19-20).

#### 4. 위선자의 기도가 부적당한 이유

출처: “Hypocrites Deficient in the Duty of Prayer”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저자: 조나단 에드워즈(1703-1758): 미국 매사추세츠의 회중 교회 설교자. 미국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평가받으며 영국의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와 더불어 영적 대각성 시대의 설교자로 유명하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신앙 감정론』(A 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s)과 그 밖의 수많은 저서를 썼다. 미국 코네티컷 이스트 윈저에서 출생했다.

역자: 김현준

“그가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욘 27:10).

이 말씀을 통해 욘기에서 거론된 위선자가 과연 누구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욘의 세 친구는 하나같이 욘이 위선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욘은 이 장에서 자신의 신실함과 고결함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선자와 얼마나 다른지 알리려고 했다. 특히나 욘은 끝까지 신앙과 의의 길을 고수하고 견디고 있는 자신의 굳건하고 변치 않는 결단을 주장한다. 이런 내용은 6절에 처음 나온다. 본문에서 욘은 이러한 확고부동함과 인내가 위선자의 특성과 얼마나 반대되는지 알리려는 것이다. 즉, 위선자는 자신처럼 신앙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교리: 위선자도 일정 기간 기도의 의무를 지속할 수 있다. 하지만 잠시 굉장한 열심을 보이다가 중단하는 게 위선자의 관례다.** 위선자들 역시 같은 성령의 빛을 받고 정서에 감화를 받으면 잠시 이런 열심을 보인다. 행여나 위선자들이 각성이라도 하게 되면 지옥의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고 매우 꾸준히 은밀한 기도의 의무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뭔가 마음이 녹는 일을 겪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하거나, 격려나 거짓 기쁨과 거짓 평안 등으로 마음이 감동할 때 받은 인상들이 지속하는 한, 그들은 계속 은밀한 기도의 의무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나 얼마 동안 이런 의무를 굉장히 열심히 실천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위선자의 관례(慣例)다.** 우리는 종종 위선자들이 보이는 선함이나 경건함의 본질이 지속적이지 않고 그것의 본질도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들곤 한다. 그것은 기도의 의무를 실천하는 일에서 드러나고, 특별히 은밀한 기도의 실천에서 더 잘 드러난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한다면 이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위선자들은 신앙 고백을 했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눈치 채지만 않는다면 기도의 의무를 생략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에 하자가 없는 것이다. 행여나 다른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기도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을 아끼던 자들은 상처를 입을 것이다. 하지만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정도로 기도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설령 위선자들이 이 신앙의 의무를 생략해도 사람들은 위선자들을 회심한 사람으로 계속 믿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점차 기도를 멀리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다. 한때 위선자

들도 참된 회심자는 은밀한 기도 없이 살 수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선자들은 차차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성향에 맞는 자신들만의 원리들을 구상할 수단들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다 마침내 한 가지 개념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곧, 사람이 회심해도 이 은밀한 기도의 의무를 크게 무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후 모든 것을 하나씩 한 군대로 끌어 모아 서로 잘 섞는다. 즉, 천국의 소망, 게으름의 허용, 세속적인 욕구의 확장, 기도하지 않는 삶 등을 섞는다. 사실 아무리 위선자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갑자기 섞을 수는 없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효과가 나타난다. 곧,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책망하는 강력한 적들에 대비해 서서히 자신들을 방어하고 변명할 수단들을 마련한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적들과 더불어 지낼 정도가 된다.

앞서 우리는 위선자는 잠시 굉장한 열심을 보이다가 중단한다는 교리로 세웠지만, 나는 당신에게 상황에 따라 꼭 그럴지도 않다는 것을 짚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위선자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한, 외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선자들은 한결같이 회중이 모인 공기도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가족 기도회에도 참여한다. 이렇듯 그들은 숨이 있는 한 내내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위선자들은 그저 기도하는 자들로만 비칠 뿐, 올바른 기도를 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역시, 위선자가 잠시 굉장한 열심을 보이다가 은밀한 기도의 의무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은 차차 중단하기에 이른다. 먼저, 그들은 어떤 특별한 유혹들에 부주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임에 계속해서 빠지거나 세상일에 과도하게 몰두하기 때문이다. 처음 한 번 기도 모임에 빠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빠지는 일이 쉬워진다. 결국, 수시로 참석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다 얼마 후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게 된다. 그럴지라도 주일에는 나오고, 다른 날에도 이따금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날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물러나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지속적인 기도의 실천은 결국 그치게 된다. 때때로 양심을 잠재우고 과거의 소망을 유지하고자 실천할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회심자라 자처하며 양심 때문에 모든 간교한 시도를 해왔는데 결국 완전히 기도 없는 삶으로 드러났을 때 자신들도 그런 모습에 놀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역시, 위선자들은 열심을 보이다가 결국 중단하게 된다.

이제 위선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위선자들은 기도의 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위선자들은 이 의무를 통한 외적인 연출에만 한껏 고무되어 있다. 그래서 크게 열심을 내고 애착도 갖지만, 항상 참된 기도의 영은 빠져 있다. 기도의 영은 거룩하고 은혜로운 영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와 간구하는 영에 대해 읽을 수 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슥 12:10). 간구하는 참된 영이 있는 곳마다 은혜의 영이 있다. 참된 기도의 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내주(內住)하신다. 이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숨을 내쉬고 혈떡일 것이다. 또한 이 영은 자연스럽게 하나

님께로 인도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성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롬 8:26) 중재하시는 분으로 표현한다. 참되고 경건한 자에게는 양자의 영, 곧 자녀의 영이 있어, 이 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한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는다.

**하지만 위선자들에게는 양자의 영이 전혀 없다.** 그들에게는 자녀의 영이 없다. 왜냐하면, 이 영은 은혜롭고 거룩한 영으로서, 오직 참된 중생의 역사를 통해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종종 경건한 자들의 독특한 한가지 특징이 다음처럼 언급되곤 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시 145:18, 19).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행 2:21).

위로부터 난 참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자연스럽다. 또한,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탄원으로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는 일도 자연스럽다. 이것은 마치 생명 있는 육체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에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위선자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본성이 없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잠깐 빛을 받고 정서에 자극을 받은 것뿐이다. 그런 것들은 곧 사라지며 본성을 조금도 바꾸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도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영혼의 본성에 어떤 기초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본성에 어떤 자극이 가해졌을 동안에만 그런 모습이 유지될 뿐이다. 하지만 그런 자극은 지속적일 수 없다. 마땅히 사라지기 마련이며, 결국 본성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참된 회심자의 영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영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의무들로 마음을 기울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의무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이 기쁨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선자에게는 그러한 영이 없다. 위선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 아래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된다.

참된 회심자의 영은 또한 믿음의 영이며,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자비를 의지하는 영이다. 이러한 영의 상태가 기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참된 기도의 영은 다름 아닌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 알게 된다(약 5:15).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영혼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호흡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선자에게는 믿음의 영이 없다. 그러므로 위선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다. 위선자의 실상은 자기 의지에 불과하다.

위선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확신하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잠시 기도의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 하지만 위선자들은 끝내 심령의 밑바닥에 이를 수 없고 본성을 바꿀만한 것도 수반하지 못한다. 이는 작은 일에도 그들의 확신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곧, 위선자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의 숨통을 조인다. 게다가 종종 젊은 날의 쾌락과 허영심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들이 지속하던 기도의 의무 실천은 끝난다.

2) 위선자가 거짓된 회심 체험을 하게 되면 이제 자신이 바라던 것은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 곧, 그가 갈망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더는 은혜의 보좌와 볼 일이 없게 된다. 위선자는 다른 어떤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다. 그가 바라던 것은 오직 지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되는 것뿐이었다. 이제 위선자는 자신이 회심했으므로 자신의 바람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자 열심히 간구하겠는가? 그는 이제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그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제거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장차 천국에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가 더 바랄 것이 있을까? 그의 영혼이 각성할 때는 그것이 자극제가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는 계속 지옥의 두려움 속에 있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이상, 하나님을 볼 일은 사라진 것이다. 비록 표면상 어느 정도 기도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행어나 자신의 소망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절실함이 사라졌으므로 느긋하게 기도의 모습을 유지할 다른 의무를 찾을 것이다. 차차 그러다가 마침내 기도의 의무마저 포기할 것이다. 위선자의 볼 일은 그가 회심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어떤 도움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참된 회심자는 이와 너무 다르다.** 그가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큰일을 구하고 더 큰 것을 공급받기 원한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불쌍하고 공허하고 무력한 피조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바라고 구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반면, 거짓 회심자는 자기 만족감에 빠진 자다. 그는 자신이 부유하고 재산도 늘고 있다고 말한다. 도무지 부족한 게 없다. 그는 자신이 파산한 자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별거 벗은 상태임을 모른다(계 3:17). 하지만 영혼이 참으로 회심하게 되면 자신의 무능력과 공허함을 계속 자각하게 된다. 그런 감각은 즐기는커녕 계속 커진다. 급기야 그런 인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이끈다. 참된 회심자는 자신에게 있는 은혜가 매우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바라는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회심하게 되면 이전에는 한 번도 인식해본 적이 없던 새로운 욕구들이 생기게 된다. 곧, 거룩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갈망하게 된다. 그래서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렇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일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진다.

자신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소망하는 위선자들은 양심에 호소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기도의 의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의 의무 실천을 요구하는 계명은 아주 분명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마 26:41). “모든 기도과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엡 6:18).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마 6:6). 위선자들이 지옥의 위험을 계속 인식하고 있는 한, 감히 이런 계명들에 불순종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이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대담해져서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요구하는 계명들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선자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즉, 얼마간 기도를 지속하다 이내 죄짓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위선자들은 죄를 자각하고 있을 때만 자신들의 삶을 개혁하고 매우 올바르게 처신한다. 이런 개혁이 계속될 때 외식자들은 자신들이 회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결과, 거짓 소망과 거짓 평안으로 감정들이 크게 고무된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식으면 과거의 정욕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차차 개들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깨끗이 씻은 돼지가 다시 진창으로 가서 똥구는 것처럼 옛 생활로 돌아간다. 곧, 감각적이고 세상적이고 교만하고 논쟁만 일삼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듯 위선자들이 은밀한 기도의 실천을 저버리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죄짓는 것과 기도는 한데 어울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이 진짜 회심했다는 생각에 도취하여 은밀한 기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그러면서도 자신을 태연하게 용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회심했다는 착각을 버리라고 촉구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찾기를 그쳤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기대하는 소망과 착각을 버릴 때다. 당신이 이렇게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자신이 한때 확신했거나 꽤 오랫동안 유지하던 천국에 대한 거짓 소망을 떠나보내기란 정말 힘든 일이다. 참된 회심은 드문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회심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보다 더 드문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착각은 거짓 소망이지만, 위선자들은 이미 자신이 회심한 것으로 확신했고, 본인들 스스로 자신의 회심을 입증하며 꽤 오랫동안 거짓 소망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당신의 거짓 소망을 버리지 못하겠다고 고집하지 말라. 당신이 사람들에게 판단 받는 일은 작은 일이다. 즉, 인정을 받든 정죄를 받든, 목사나 사람들이나 현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판단을 받는 것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저버린 자 중 하나가 되거나 하나님을 부르기를 그친다면 당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모든 현자와 경건한 사람과 목사가 당신을 판단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일이다.

당신은 분명한 경험을 통해 독으로 드러난 그런 소망을 왜 유지하려 하는가? 거룩한 소망, 곧 하늘에서 온 소망이 그러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당한가? 아니다. 그렇게 해로운 영향력은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절대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낙원에서는 어떤 독도 나올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죄로 인도하는 소망은 마침내 지옥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그러한 거짓 소망을 유지하려 하는가? 당신은 이러한 소망이 당신을 계속 부추겨 죄악 된 삶을 살도록 자극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은가?

만일 당신이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소망의 본질과 성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고집하는 그 소망을 파악하여 그 소망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해로운지 드러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은 지옥에 갈 때까지 그 소망을 붙잡을 것인가? 수많은 사람이 거짓 소망에 집착하고 끝내 떨치지 못해 오히려 지옥의 화염이 그들의 팔을 억지로 벌리게 해서 거짓 소망을 놓게 했다. 그들은 그렇게 될 때까지도 자신들의 거짓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지혜가 없거나 영원한 삶에 대

한 평안과 소망을 주실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을 선동해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다는 것이다.

## 5. 위선은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가?

출처: “The Conviction of Hypocrites” in *The Works of David Clarkson*, Vol. 2.

저자: 데이비드 클락슨 (1622-1686): 독립 청교도 설교가 겸 작가. 존 오웬(John Owen)의 동료이자 오웬의 연단의 후임자. 클락슨은 강력하고 실험적인 작업물을 씀. 영국 요크셔 브래드포트(Yorkshire, Bradford) 출생.

역자: 이해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 23).

**관찰:** 많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자신이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 확신한다.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것은 말씀 안에 명백히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암시적이므로, 나는 그것에 대해 별로 고집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이 비통한 실수의 원인들을 알아냄으로 그것들을 피하게 하려고 한다. 그들은 아래와 같다.

**(1) 무지함과 부주의함:**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거나 적어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중생**이 반드시 필요함을 -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 고려하지 않는다. 즉,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오직 새 피조물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지 않는다. 영혼의 모든 부분과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에 보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오래된 것은 지나가야만 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한다. 즉,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삶, 성장, 능력,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에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 -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거기에는 그들 자신의 지혜, 뜻, 기질, 흥미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포기**해야 한다. 그들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 **죄 죽임**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애정과 정욕의 육신을 억제하고 매일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눈물, 한숨, 속박, 구속, 재산, 관계들, 그의 사지, 피,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데는 모든 근면함이 요구된다(벧후 1:5). 설혹 땅과 노고의 희생이 밀려올지라도 그는 모든 고난을 부수고 헤쳐 나가야 한다(눅13:24). 그는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하여 씨름하여야 한다(엡 6:12). 그는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하며, 그가 목표에 이를 때까지 달려야 한다. 그는 싸워야 하며, 계속 전투를 해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는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한다(고전 9:27). 그가 천국을 가지려면, 침노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만약 이런 사실을 알고 고려한다면, 천국에 요구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낯설 경우 천국에 대해 확신하지 못할 것이다.

**(2) 태만, 게으름:** 만일 그들이 이러한 요구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상태를 점검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일부러 자신들의 마음을 그 요구들과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에 도달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몇 시간이라도 진지하게 할애하지 않을 것이다. 아, 그들의 영혼과 영원한 상태에 관한 인간의 끔찍한 부주의함이여! 진지하게 관찰하는 자는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이거나 미치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또한 그들의 영혼이 불멸하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죽음 이후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비참 또는 행복이 있음을 믿지 않는다. 그들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을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으니 무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영혼과 영원한 상태와 말씀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그들의 영혼이 천국 또는 지옥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왜 그 지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의 몫이 천국일지 지옥일지 진지하게 점검하는 데 쓰일 몇 시간을 왜 할애하지 않는 것일까? 왜 자꾸 나중으로 미루는 것일까? 참으로 그들이 미치광이가 아니라면, 그들의 모든 영적 감각과 사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영생과 죽음의 문제가 요구하는 점검을 진지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괴롭히기보다, 천국에 갈 것이라는 믿음을 취할 것이다. 아, 사탄의 제안이나 그들 자신의 기만적인 마음이 그들을 자극 시킬 뿐 그들의 믿음에는 근거가 없다. 그렇기에 그들은 영원의 모든 무게를 거미줄에 걸어 놓는다. 그들은 전혀 그들의 영혼 문제를 붙들어줄 수 없는 어떤 그림자에 그들의 영원한 문제를 매달아놓고는 충분히 안전하다고 착각한다. 미치광이가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하겠는가? 도대체! 육신과 영혼이 걸려 있는 영원한 문제를 확인도 하지 않고 믿는다는 말인가? 어떤 이들은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지? 나는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더 이상 어떤 신경을 쓰라는 것이지?” 아! 이 가엾은 사람이여!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사탄을 신뢰하는 것이다! 오, 언젠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끔찍한 선포를 할 때 어떠하겠는가! 자, 인간이 그들의 영혼에 대해 이토록 부주의하기에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상태를 점검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 헛된 소망을 가진 그들에게 지옥이 마련되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

**(3) 자기애:** 이것은 자신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하게 한다. 자기애는 영혼의 상태에 대해 안일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또는 공공사역에서 점검을 시도하라고 요구를 받더라도, 자기애에 이미 사로잡혀서 점검할 것이다. 자기애는 그들의 영혼을 공정히 다루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것이든 그들에게 유익되면 탐욕스럽게 붙들고 그들을 맞서는 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보복한다. 만일 보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면 편파적인 사람들이 나쁜 대의명분을 옹호하기로 결심할 때 하는 것처럼 그들의 거짓된 소망을 흔드는 자를 원수로 간주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왕의 심부름꾼들에게 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를 차단한다.

자기애가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게 만들 듯,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들은 숨김없는 진실을 사랑하지 않으며 진실을 찾는 것과 깨우치는 진실을 사

랑하지 않는다. 그들을 반대하는 말씀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좋게 해석할 것이다. 그들은 라 오디게아 교회처럼 자신들은 “부자라 부요”하다고 말하나, 그리스도는 그들이 “가난하고 곤고하다”고 말씀하신다(계 3:17). 이런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나도 자기애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여 분별을 할 수도 없게 하고 분별 하고 싶은 마음도 갖지 못하게 한다. 맹인은 색을 판단할 수 없고 자기애는 눈을 멀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특징이 천국의 것인지 지옥의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참으로 알게 되면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거울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탄은 한쪽 눈을 멀게 하고, 자기애는 다른 한쪽을 닫게 하며, 죄의 교활함은 두 눈을 봉인한다. 따라서 그들이 어둠을 빛이라 부르더라도 놀랍지 않다!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있으면서 천국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 때,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다. 그들의 발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자신들은 천국에 안전하게 상륙하여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4)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만약 어떤 죄인이 말씀의 빛과 책망에 의해 자신이 구원의 조건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는 그가 자신에 대해 오해하여 헛된 거짓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죄인은 “사실 이 경우, 규율은 엄격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 보이고,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많으며, 나는 이것저것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필요한 이것저것을 내가 찾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는 이런저런 죄를 허락하며 때때로 그런 죄에 빠지지만, 그냥 작은 죄일 뿐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격하지 않으시고 엄하지 않으시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엄격하거나 엄하지 않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비록 규율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나를 특면해 주시고, 나는 그들 중 가장 좋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아, 가여운 현혹된 죄인이여! 여기에 당신이 모든 소망을 걸었다면 당신은 절망적이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모순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어긋나게끔 자비로우시겠는가? 그분께서 그분의 진리를 등한시하고 당신에게 엄청난 자비를 보이시겠는가?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당신을 구원하시겠는가? 당신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명백한 신성모독밖에 없음을 알고도 떨지 않는가?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에 필요한 것을 찾지 못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그것 없이 당신을 구원하셔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진리를 버리셔야 한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모순된 분으로 만드실 것으로 생각하는가? 오, 당신이 말했듯,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가망이 없지만 현혹된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니 당신의 경우가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가!

**관찰:** 많은 이들이 천국을 향해 한참 달려가지만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로 한참 달려가지만 결국 천국을 놓칠 것이다. 이것은 본문에서 분명하다.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열성적인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분을 말로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를 참으로 경배하였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으며 말씀을 전

하였고 기도도 했고 찬양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에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그들을 부인하시며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공언하실 것이다. 즉, 주님은 그들을 결코 사랑하거나 인정하신 적이 없으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실 것이며 죄인들이 당할 처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이 진리에 대한 증거는 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여기에서 질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짓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길로 얼마나 달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일반적인 것들과 특별한 것들에서 얼마나 멀리 달려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한다.

### 1) 특별한 것들에서:

(1) **계시, 꿈, 환상:**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다. 그것은 경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욥 2:28; 행 2:16). 느부갓네살의 경우 그는 다니엘이 언급한 것처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부터 꿈을 받았다(단 2:47). 그의 꿈은 평범한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은밀한 것을 밝히시는 이, 즉, 주님으로부터 보내진 것이다. 그의 꿈의 주제는 평범하지 않고, 장래의 비밀스런 것들이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에 발생할 가장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드러냈다. 곧, 세상 군주들의 흥망, 기간, 혁명에 대한 것이었고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그리스도의 왕국의 건립이 세상 모든 나라를 부수고 그것들의 폐허 위에 그분의 왕좌를 세우신다는 것이다(단 2:34). 느부갓네살의 꿈은 성경에 언급된 어느 것보다도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다.

애굽 바로 왕도 꿈으로 계시를 받았다(창 41:24, 28). 그리고 사울이 꿈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불평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 주께로부터 그런 방법으로 계시를 받았음을 암시한다(삼상 28:6). 이것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확인된다.

환상의 경우, 점술을 하던 마술사 또는 요술사 발람에게서 명확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민 24:1). 주님은 그에게까지도 환상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다(민 22:9, 12, 20). 그는 여호와와 사자의 환상을 보았다(민 22:31). 하나님은 발람을 만나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민 23:4, 5). 민수기 23장에서 두 번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었고 24장에서도 두 번의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졌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민 24:2-4)이라 하고,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민 24:16)라고 소개한다.

(2) **예언의 은사:**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신경 쓰지 않으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항변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기껏해야 위선자였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였다(삼상 10:10, 19, 23). 이런 이유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

는 속담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시기 그렇게 오래 전에 발람의 예언만큼 그리스도에 대해 그토록 분명한 예언은 거의 없다. 그는 또한 여러 나라(모압, 에돔, 아말렉, 겐 족속, 앗시리아인 그리고 로마인)의 파멸과 누가 그들을 파멸시킬지에 대한 예언을 하였으며 이 사건은 사실로 입증되었다(민 24:17-24).

**(3) 기적을 행하는 힘:** 그들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고, 모든 병을 고치고, 악마를 쫓아낼 수 있다. 그렇다. 그들은 산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 증거로 신명기 13장 1-2절을 보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우상 숭배자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들은 이렇게 간청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마 7:22). 그러나 그들이 어땠는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 가롯 유다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가롯 유다는 그들 중 하나였는데 주님은 열두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마 10:1) 주셨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그들 열두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의 이름이 호명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즉,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 10:4-8)고 기록되어 있기에 가롯 유다 역시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다.

**(4) 방언의 은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고전 13:1). 방언은 구원의 은사가 아니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받을 수 있다.

## 2) 평범한 것들에서:

**지식에 있어, 그들은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언’이라는 단어에 이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예언’을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하든 또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든 ‘예언’은 필연적으로 지식을 전제하며 포함한다. 그리고 이 지식은 아래와 같을 수 있다.

**(1) 엄청난 양의 지식:** 그 지식은 신실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알지 못하는 지식일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는 빛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진리의 광산에 더 깊숙이 파고들어 더 큰 발견을 할 수도 있다. 가롯 유다는 그의 전도에 의해 회심한 많은 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듣는 이들보다 더 많이 알지 못했다면, 그는 그들을 가르치거나 그들의 스승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식에 있어서 충분히 가르칠 자격이 있는 자들을 택하셨을 것이다.

그들의 지식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는 사도도 의심하지 않는다(고전 13). 그들은 모든 필요한 진리, 즉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필수적이고 근본적이며 신앙의 기초가 되는 진리뿐만 아니라, 철두철미한 지식, 즉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식들까지 갖추고 있다.

“모든 지식”은 포괄적인 표현으로써 그 범위가 끝없이 엄청날 수 있다. 그들은 지식의 규모와 정도에서 있어서 참 성도를 훨씬 더 능가할 수도 있다. 그는 진리를 정확하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며 개념적으로는 그가 이해한 진리가 분명하고 뚜렷하다는 사실까지 확신할 수 있다. 그의 개념은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할 정도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의문이나 모순에 대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는 그가 정립한 개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설득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다. 참으로 구원 받은 영혼이라도 많은 부분에서 그들과 비교될 때 훨씬 무지 속에 있을 것이다.

**(2)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과 그리스도의 진리들, 그리고 복음의 교리에 대한 대단하고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흔하고 분명한 진리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신비롭고 예리한 부분들, 즉 천국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마 13:11).

**하나님의 비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4:1).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진정한 은혜가 전혀 없이도 모든 비밀, 즉 모든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전 13:2). 위선자는 계시의 영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신성한 비밀, 즉 그 어떤 본성의 빛과 인간의 이해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는 이런 비밀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그런 비밀들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접근할지도 모른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마치 낮은 개울을 지나듯이 파헤칠 수도 있다. 타인에게는 어려운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쉬울 수도 있다.

**영적 체험에 관하여:** 비록 그들은 간접적으로 이런 체험적 지식을 가질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체험에 대한 대화를 나눌 때도 그들의 많은 체험적 지식을 드러낼 수 있다. 그들의 영혼은 오직 모양만 있고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나 된 듯 매우 정확하게 새 피조물의 삶을 묘사할 수 있다. 그들은 은혜의 역사에 대해 너무 정확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이 거듭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참된 신자에 대해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 마음속에서 육신과 영의 갈등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한다. 그들은 신앙 생활 가운데 받은 여러 은혜들에 대해 말하고, 섭리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유혹들에 대해서도 말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의 체험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무 것도 가르칠 수가 없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데, 머리로는 정확한 개념과 생각들을 고집어낸다.

**성경에 대한 이해:** 그들의 성경 이해는 탁월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내용과 막히는 부분들을 잘 풀 수도 있다. 그들은 성경의 단어와 문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의미도 철저하게 알기도 한다. 그들은 심지어 대단한 총명함으로 성경의 의향과 뜻을 알아냄으로 성경이 내재하시는 수많은 참된 신자들을 지적으로 능가하기도 한다.

**(3) 성령에 의한 깨달음(하나님의 영에서 비롯된 것):**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열심히 성실하게 독서와 공부와 회의 등을 통해서 얻을 뿐만 아니라, 방편을 통해서든 또는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히 6:4-6). 성경은 결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이 “빛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주신 분이 누구지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 그들은 성령의 빛과 은사들과 역사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성령님께 참여한 바 되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셨기에 그들은 그분께 참여하였다. 이것은 흔한 방법이 아닌, 성령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신 방법이다. 세상의 모든 빛과 지식은 빛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부르는 빛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중보자이시며 그분의 교회의 위대한 선지자이시므로, 가장 특이하지는 않으나, 더 특별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도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선지자적 직분을 집행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즐거워하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신성한 빛을 퍼뜨리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발람, 사울, 가야바 같은 사람에게 임할 수 있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예언적인 빛보다는 복음적인 빛을 그들의 영혼 속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과 장차 다가올 세상의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들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이런 빛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빛을 받을 때는 체험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런 빛에 의해 이런 비밀들의 탁월함과 선함과 달콤함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체험할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지식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그런 빛과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있게 될 것이다.

**(4) 효력:** 그들의 지식은 엄청나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지식은 그들의 영혼과 삶, 마음과 감정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지식은 그들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변화를 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할 수도 있다.

자, 이 지식은 감정에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감정이 나타난다는 것은 의지의 행위와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식은 의지에 어느 정도 효력을 나타냄을 뜻한다. 이제 의지는 움직이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사람의 모든 부분을 움직이도록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식은 한 사람 전체에 효력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모든 심적인 기능과 외적인 신체 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식이 심적인 부분에 가져오는 효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하였다. 그것은 두려움, 희망, 기쁨, 슬픔 등을 자극할 수 있다. 여기서 지식이 가져오는 삶의 개혁을 보라. 지식은 죄를 피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듯 도망치게 만들 것이다. 이처럼 위선자들이 가진 지식은 매우 강력할 수 있다.

오, 당신의 안타까운 상태를 고려해보라! 당신은 천국에 못 미치는 사람보다 한참 더 못 미치는 상태에 계속 머물렀는가? 만약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을 만큼, 심지어 그 땅의 부분적인 맛을 체험할 정도로 가까이 간 자들이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고작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죽었다면, 애굽의 어둠에서 나오려고 버둥거리지 않은 자들이야 어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애굽이 가나안 땅에서 밋 것보다 훨씬 더 먼 약속의 땅 천국에, 애굽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처럼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멸망할 수 있는데 하물며 무지한 사람은 얼마나 분

명하게 멸망하겠는가!

~~~~~

위선자는 죄 그 자체로 신음하지 않고 죄 그 자체를 미워하지 않으며 죄 그 자체에 대항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단지 발람처럼 죄의 유혹을 받고도 죄를 억제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다(민 22장).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애굽의 바로와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다(출 10:16, 마 27:4).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단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아도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아합왕처럼 죄로 인한 끔찍한 결과와 열매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다. 지옥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는 자는 죄 때문이 아니라 고통의 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죄를 미워하는 자는 죄악 그 자체를 지옥만큼이나 싫어하고 미워한다. - 토마스 브룩스

## 6.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져 놀라다

출처: “Sinners in Zion Tenderly Warned”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 2,

저자: 조나단 에드워즈 (1703-1758): 미국의 청교도 목사 및 신학자

역자: 아브라함 장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어져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사 33:14)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참으로 경건한 자들로서 성경에서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사 33:15)로 지칭되는 자들이다. 또 다른 부류는 ‘시온의 죄인들’ 혹은 ‘경건하지 않은 위선자들’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본 장에서 선지자는 이런 특징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가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위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는 한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은혜로운 약속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온의 죄인들은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대답한다. 시온 혹은 고대 다윗성은 일종의 교회였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마 그 어떤 이름보다 시온이란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린다. 더욱이 시온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참 교회, 또는 참 성도들로 이루어진 비가시적 교회를 의미한다. 하지만 때때로 이 말은 신앙고백과 외적 특권들에 의해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된 가시적 교회를 의미한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런 의도로 시온이란 말에 쓰이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리스도의 양떼들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언제 든지 그 수가 적었다. 그런데 세상 죄인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가시적 교회의 경계를 넘어 겉보기에도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 또 참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지 않거나 외적인 종교 의식에 참여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시온에 있는 죄인들인 셈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의 대상이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시온의 죄인들은 단연코 지옥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해질 것이다. 그들이 현세에서는 하늘 높이까지 크게 높임을 받을지라도 내세에서는 지옥의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것이다. 경건을 가장한 위선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시온의 죄인들은 모두 참된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위선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식에 참여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연기를 하나 결국 이들은 모두 위선자들이다.

**그들도 후에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그들 대부분은 거의 또는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아 보인다. 그들은 평안하고 안전하다. 아무것도 그들을 각성시키지 못할 것이다. 엄청나게 끔찍한 위협과 가장 큰 경고 소리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 것들로써 그들의 마음이 미동도 보이지 않기에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

상 관심사들을 따라 살아간다. 지금 당장은 설교를 들어도 각성하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아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어쩌다 각성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오나니 그 때가 오면 그들의 마음이 깨어나게 되고,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즉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어마어마함과 그것의 갑작스러움이 함축되어 있다.

**1)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어마어마함.** 놀람이란 말은 대단히 심한 두려움을 나타낸다. 그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은 경악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시온의 죄인들 중 일부는 지금도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간간이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다. 그들은 지옥과 같은 곳이 있다는 것을 참으로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뭔가가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은 가끔 양심으로부터 생겨나는 내적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미래에 있을 진노를 피하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게 할 만큼 크지는 못하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은 두려움을 충분히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막대한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공포가 파도처럼 그들을 삼킬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그 두려움의 때에 절망과 고통, 근심과 슬픔이 그들 위에 들이닥칠 것이라 기록하고 있다(잠 1:27). 또한 악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환난과 역경이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들을 쳐서 이길 것이라고 매우 강조되어 있다(욘 15:24).

그 때가 되면 그들의 굳세던 마음도 두려움으로 녹아내릴 것이다. 혹시라도 어느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런 자신을 경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신에 대해 수치스러워할 정도로 강인한 정신을 소유한 자들의 마음도 물처럼 흐물흐물해지고, 어린 아이의 마음처럼 유약해질 것이다. 또 그들 중에서 가장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자라도 자신을 엄습하는 두려움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얼굴빛은 창백해질 것이요, 그들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가득할 것이다. 그들 몸 안의 모든 관절이 떨리고, 모든 뼈가 흔들릴 것이며, 양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떨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고향을 지르고, 가장 음산한 비명소리를 내며 신음하기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2) 그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시온의 죄인들은 대부분 안전하게 지내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두려움에 떨어 울부짖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암울한 공포에 질려 안전한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익히 알고 있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며, 뜻밖의 시간에 닥치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처럼 악한 자들이 두려움과 놀람 속에서 떨게 되는 시간은 종종 그들의 임종의 순간에 찾아온다.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영혼에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자기들과 같이 젊은 나이에, 비슷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던 이들이 죽는 것을 볼 때와 그러할 것이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죄인들은 자신들이 이미 얼마나 나이가 들었고, 그럼에도 아직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인 것과,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게 될 기회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얼마나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죄인은 보통 기겁하며 경악에 빠진다.** 그가 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곧 회복될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을 안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병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자신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게 된다. 의사들의 처방약이 모두 아무 효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치료와 친구들의 노력도 헛되고, 아무 것도 그를 도와줄 수 없으며, 그의 친구들조차 그의 처지를 체념의 눈으로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담당 의사의 표정과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의사 역시 그의 병세가 호전될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눈치 챈다. 어쩌면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며 나누는 친구들의 이런 얘기들을 엿듣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들의 눈에는 이미 죽음이 임박했다거나, 팔과 다리가 이미 조금씩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거나, 표정과 호흡, 맥박에서 죽음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몸에서도 싸늘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등의 얘기들이다. 이윽고 어쩌면 누군가 나서서 자신이 그에게 최악의 상황을 알려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찾아와 그가 죽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때, 그 순간 시온의 죄인은 얼마나 두려워 떨게 될 것인지! 두려움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어떻게 녹아내릴 것인지!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며, 만약 살려만 주신다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또 그는 자기 친구들은 물론 교회 목사님까지 자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고, 그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자신이 반드시 그 병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은 얼마나 가라앉고 있으며, 속에서는 어떻게 죽어가고 있을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그의 모습은 어떨는지! 창백하고 암울한 죽음이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또 몇 시간 혹은 몇 분 안에 자신이 들어갈 광대한 영원에 직면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그는 마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불쌍한 사람처럼 쉽게 부러지는 가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움켜진다. 그러나 죽음이 슬금슬금 그에게 다가오면서, 그가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는 부러져버리고, 삶에 대한 모든 희망은 무너지고, 어쩔 수 없이 그는 죽어야만 함을 깨닫는다. 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오직 죽음뿐이구나! 지금까지는 줄곧 희망을 바라봤으나, 이제는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뿐이다. 그의 눈앞에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다. 바로 이 순간 지옥에 대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면서 소스라치게 놀란다. 오! 어떻게 그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음을 그는 알고 있다. 그의 온갖 죄가 그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오! 너무나 무섭도다. 영원의 심연이여! 어쩌면 병에 걸린 이후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은 계속되었다. 또 그것이 그의 마지막 병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죽기 전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약간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끈질기게 빌고 애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없는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랐다. 그와 동시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비취줄 어떤 빛을 날마다 찾아 헤매고 있었다. 하지만, 아아, 슬프도다! 이제 그는 죽어가고 있는데 곁의 친구들은 죽음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묻고 있다. 또는 어떤 빛이 보이느냐고 묻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징표 같은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조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더듬거리듯 떨리는 목소리로 ‘아니’라고 대답한다.

죽음은 그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이제 그는 영원의 문턱에 서 있다. 그 공포, 그 불안, 그 미련, 그리고 그 영혼이 느끼는 끔찍스런 공포와 떨림을 어느 누가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오, 영원이여! 영원이여!” 또 어떤 이는 “오! 잠깐의 순간에 영원한 세상에 들어오다니!”라는 말만 중얼거렸다고 한다. 오! 그들이 조금만 더 살게 된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그들은 떠나야만 한다. 그들은 몸이 해체되는 것을 느끼고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느낀다. 때로 이성의 활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는 때도 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영혼을 육신의 몸에 묶어 두었던 띠가 끊어지고, 영혼이 영원의 가장자리와 아무런 구원자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지옥의 문턱에 덜컥 도달하는 순간, 그 영혼은 과연 어떻게 느끼게 될는지, 다시 말하면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이 어떻게 느끼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들의 인식을 초월한다.

**세상을 떠난 죄인의 죽은 영혼이 당하는 비참함과 고통에 있어서 지금 당장 느끼는 고통과 두려움 외에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두려움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영혼과 육체의 연합이 깨지고, 육체가 마지막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후, 영혼은 오랫동안 머물렀던 집을 떠나 마귀의 손아귀에 떨어진다. 그러면 마귀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에 달려드는 것보다 훨씬 난폭하게 그 영혼에 달려들어 당장 움켜잡는다. 마귀의 잔혹한 손아귀에 떨어지다니, 이 얼마나 끔찍한 공포가 아니겠는가!

또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고통 속에서 전능자의 진노를 당함으로 완전히 짓눌리고 깨어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앞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 영혼을 더욱 떨게 할 것이다. 여전히 남아서 영원히 계속될 그런 고통을 생각해 보라, 그런 고통이 그 가련한 영혼을 휘감아 위압하며 짓누른다고 생각하니, 오! 그 영혼은 어찌될 것인가! 이런 고통이 끝없이 지속될 것이란 생각만으로도 그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만으로도 암흑과 어둠으로 가득한 밀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그 영혼이 가라앉지 않겠는가! 저 교만하고 강박한 마귀들조차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자신들이 당하게 될 더 큰 고통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다. 지옥에 떨어진 인간의 불쌍한 영혼들도 그럴 것이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보다 엄청나게 더 큰 고통을 앞으로 더 당하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 떨게 될 것인가.

이 땅에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데... 오! 그렇다면 지옥에 떨어져 이미 그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며, 그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는

날에는 자신들이 심판장의 왼편에 서서 끔찍한 선고를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몸과 영혼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히 타는 불에 던져질 것을 확실히 알며, 어쩌면 그때 당하게 될 고통은 지금 당하는 것보다 수백배는 더 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은 두려움으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 속에 나타나시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악한 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놀라게 될 것이다. 지옥에 떨어진 가련한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된 순간부터 매일, 매 순간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두려워 떨고 있다. 실로 그 영혼은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지옥에서 그 날이 온다는 경보가 울리면, 정말로 그것은 공포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지옥의 동굴 안은 비명소리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멸망 받은 영혼들이 그들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되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놀라운 공포가 엄습하리라! 그리고 자신들의 머리를 무덤 위로 쳐들어 올리면 그들의 시야에는 심판장이 보이고 그 광경은 가장 무시무시한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기꺼이 무덤으로 돌아가 거기에 숨으려 할 것이다. 또 허락만 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전에 겪었던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기꺼이 돌아가 것처럼 무시무시한 광경에서 도망쳐 숨어버리려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이 땅에 살아 있는 시온의 죄인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놀라게 될 것이다.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죽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생각보다 큰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이러한 광경을 보게 될 때 그들을 사로잡을 공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땅의 악한 자들 중에는 그것을 견딜 수 있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며, 그런 자가 있다면 과연 어떤 자일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노인이나 젊은이, 남자나 여자, 종이나 주인, 왕이나 신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누구든지. 세상에서 가장 기세 좋고 용감하며 튼실한 자라면 될는지! 능히 자기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누구든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그 즉시 기세가 꺾이면서 허리 관절의 힘은 풀려버리고 얼굴 표정은 죽음보다 더 섬뜩할 정도로 흉측하게 변할 것이다. 지금은 원수들 앞에서 두려운 기색을 노출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여유 만만한 선장들과 맹렬한 포화 소리에 두려워 떠는 것을 경멸하는 용맹한 장군들과 왕자들일지라도,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고 재판장의 위엄을 보는 순간 벌벌 떨며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빨을 덜덜덜 떨면서 산 속의 동굴과 바위에 몸을 숨기려고 내달리면서 그 산과 바위를 향하여 제발 자신들 위에 떨어져 재판장의 진노를 막아달라며 울부짖게 될 것이다.

**심판대 앞으로 끌려나올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놀라게 될 것이다.** 막상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되면 악한 자들은 머뭇머뭇 거리지만, 대재판장 앞에 서야만 할 때가 되면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결코 물러설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의 좌편으로 가라는 선고가 받게 되면 그들은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당황하게 될 것이다. 재판장의 위엄은 그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무게일 것이다. 그분의 순전하고 거룩한 눈이 그들을 응시하며 속을 꿰뚫고 훤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은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번개의 섬광보다 그들

의 영혼에 천배나 더 섬뜩한 일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무서운 판결이 곧바로 선고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서 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무시무시한 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날아가기라도 해야만 할까? 그렇다고 재판장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까? 그들은 아무리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는다고 해도 그 선고를 듣지 않을 수 없다.

**선고가 내려질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놀라게 될 것이다.** 심판이 끝나면 끔찍스런 파멸이 재판장의 입으로 선언될 것이다. 그 선언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섬뜩한 목소리가 될 것이다.

**끝으로, 그들이 영원히 고통 받을 세상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놀라게 될 것이다.** 일단 선고가 내려진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과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그 아래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올라가실 것이다. 그러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어쩌면 그 불은 천국에서 내려다보일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그 불길은 저주받은 우리들을 휩싸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놀라게 될 것이다. 그 불길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게 타오를 것이니 그들에게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그 불길을 피하여 어디 갈 데라도 있을까? 과연 그들은 어디에라도 숨을 수 있을까? 그들이 구멍을 파고 기어 들어가거나, 땅 속의 굴로 기어 들어가거나, 아니 땅의 한가운데까지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산들의 밑에서부터 불이 타기 시작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지옥까지 온통 불에 탈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망칠 곳도, 숨을만한 곳도 찾을 수 없으니, 마침내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깊은 절망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일은 내세에서 죄인으로 판결 받는 모든 자들에게 따라올 것인데, 특히 시온의 죄인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

위선자는 죄가 자기 이름을 더럽히고, 양심에 상처를 내고, 재앙을 가져오고,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자신의 천국 가는 길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그러나 결코 죄가 하나님의 본성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기 때문에, 죄의 본질 속에 있는 악 때문에, 또는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죄의 힘 때문에 죄를 괴로워하지도, 죄를 애통하지도, 죄를 미워하지도 않는다. - 토마스 브룩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밤낮으로 그들을 완벽한 안전 속에 지키신다. 어느 누구나 어떤 권세도 그들을 그분의 손에서 빼낼 수 없다. 그분은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담당하셨다. 그들의 죄를 위해 죽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그들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을 통과하는 여정 가운데 그들의 안위를 위한 공급을 마다한다면, 즉 그들을 각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방치하거나 그들 자신의 마음 속 부패와 사탄의 권모술수, 엮어매는 세속의 힘에 무방비로 노출된 먹잇감으로 남겨놓는다면 그의 백성들에게는 부분적 구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삼중의 원수들, 곧 사탄, 중생하고 성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의 그들 마음을 붙들고 있는 세상, 그리고 같은 진영에 있으나 언제든지 원수들의 손에 영혼을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반역의 적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

황에서 가련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가 이처럼 강력한 동맹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구원의 전능자이신 그분은 능히 지키실 수 있다. 그분 안에서는 믿는 자들이 처해질 수 있는, 힘들고 복잡하고 위험천만한 모든 상황들에 맞게 공급이 이뤄진다. 은혜는 온갖 뿌리 깊은 타락을 복종시키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지혜, 힘, 위로, 긍휼, 자비 등의 무기가 공급된다. 이 모든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약속하시는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풍족히 쌓여있으며, 가없는 처지의 믿음을 가진 죄인은 이 모두를 요구할 수 있다. - 옥타비우스 원슬로우

## 7. 내적 신앙

출처: “The Christian Described, the Hypocrite Detected” in *The Complete Works of Thomas Boston*, Vol. 9.

저자: 토마스 보스턴(1676-1732):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겸 학자. 『인간본성의 4중 상태』(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현대 신학의 핵심 노트』(Notes to the Marrow of Modern Divinity), 그 외 다수의 유용한 논문과 설교들의 저자. 스코틀랜드 버위크셔 주, 던스 출생.

역자: 정영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 신앙, 즉 영적인 신앙을 갖는다. “우리는 성령으로 섬기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참조, 빌3:3).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섬긴다. 여기에 모든 신앙의 핵심인 진실과 영광 생명이 있다(요 1:47). 이런 신앙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1) 교훈의 은혜로움(딤후 1:5):** 그들의 내적 신앙은 주의 영의 영향을 받은 그들의 새 본성의 열매다. 그 신앙은 자연스럽고 강압적이지 않으며, 또는 공포나 하나님의 진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새 본성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절대적으로 내적 신앙을 택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두려운 상황에서만 신앙을 택한다.

**2) 그들의 목적이 거룩함:** 그들의 주된 목적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골 1:10). 그들의 구원에 대한 강조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자신들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의무에서 그들의 목표는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위선자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섬김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나 신실한 영혼은 양자의 영 덕분에 자녀 같이 행동한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다음을 배울 수 있다.

**신앙의 관심이 외부에 있고 마음에 없는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보여준다(마 23:25).** 흰 무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선자를 상징한다. 참 신앙에 이르지 못한 자들 중에도 내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는 자들이 있다. 하물며 전적으로 외적인 것에 국한된 이들이야 어떻게 참 신앙에 이르겠는가? 한편, 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행동하는 원리와 목적이 무엇인지 잘 검토하고, 그들의 내적 신앙이 힘을 잃지 않도록, 생명 없는 죽은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신앙의 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을 통해 인식 할 수 있다.

**1) 어떤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주님께 자신을 인정받으려는 노력(골 1:10):** 의무로써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알기 위하여, 말씀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자 하는가(욘 34:32; 시 139:23, 24)?

**2) 모든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동기, 원칙 및 목적을 그들의 내적 신앙과 외적 신앙에서 제**

**거하려는 노력(요 3:21):** 자아는 미묘하게 침투한다. 이에 모든 삶 가운데 신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의무를 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한 그들이 의무를 행할 때 성령으로 행하지 않음에 탄식하는 것은 좋은 징조다(롬7:22, 23).

**3) 그들의 외적 그리고 내적 신앙을 부인함으로써(빌 3):** 그들은 행위로 천국을 얻으려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 주 앞에 벌거벗은 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만 의지하는 것은 좋은 표시다(마 5:3).

내적 신앙과 연결된 이 부분에 대해 위선자는 어떠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지 보여 주겠다.

**1) 어떤 사람은 어떤 죄, 특히 큰 죄를 지은 후에 그 영혼이 고통을 받아도 그는 단지 외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러하다. 비록 모든 정결치 못한 마음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악들도 있지만, 어떤 죄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목에 남아 그를 찌르기도 한다. 즉,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한다. (1) 그가 어쩔 수 없는 불안과 염려를 느낀다. (2) 그런 짓을 행한 자신을 향해 분개한다. (3) 죄에 대한 명백하고 공개적인 고백으로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수치심을 취한다(마 27:3, 4). (4)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모든 순간마다 죄를 경계하는 강력한 결단을 한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애굽의 바로가 매번 한참 생각하고 말한 것은 도덕적으로 진지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위선자들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진 후 나타내는 4가지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1)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이 진심으로 낮아진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그를 괴롭히는 죄의 악함과 그를 배를 뒤트는 역겨움을 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욘 42:5, 6).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을 인정한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어떻게 처벌하시든 주님의 발 아래 자신을 내던지고, 하나님과 다투는 입을 막는다.

**(2) 하나님께 행한 그리고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한 불명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 51:4). 그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 은혜로운 복, 그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위엄에 대한 생각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 화살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주께 그런 식으로 보답한 자신을 죄수와 어리석은 자라 부른다.

**(3)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및 구속주의 피의 적용에서 나오는 평화 외에는 아무런 평안을 얻을 수 없다(롬 1:5).** 다른 사람들은 슬픔과 회개와 고백을 한 후에 어떻게 하든 평화를 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덮음 아래서 평화를 얻을 때까지는 아무런 평화가 없다(히 9:14).

**(4) 시련 가운데 그들은 거룩하여지기 위해 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시 51:10, 11).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시련을 당할 때 더욱 자신에게로 마음을 향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혹시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더욱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 할 것이다. 그 후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이러 저러한 죄에 대해 믿음 없는 맹목적인 맹세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영의 거룩함과 보혈에 의한 그의 칭의에 동일한 관심을 가질 것이고, 둘 다 동일하게 필요한 것을 안다.

**2) 어떤 사람은 죄와 유혹에 맞서 자신 안에서 큰 투쟁을 한다. 그러나 여전히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다.** 죄에 대한 모든 내적 투쟁이 육과 영 사이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실수다. 헤롯은 요한의 참수를 행하기 전에 자신과의 큰 갈등이 있었다(마 14:9). 빌라도도 그리스도를 정죄하기 전에 그랬다. 그렇다. 위선자 역시 이런 투쟁을 할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유혹에 맞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죄에 이기기도 한다. 발람의 경우는 그러하다. 발람의 모든 간청과 보상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았다.

여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위선자를 넘어서는 다섯 가지가 있다.

**(1) 신자의 투쟁은 그가 가진 새로운 본성에서 시작된다. 그는 거룩함에 대한 습관적인 성향과 악에 대한 혐오를 가진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위선자의 투쟁은 노예적인 두려움에서 비롯되거나, 기껏해야 교양에서 비롯된다. 이는 옛 본성에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쉽게 무너진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만 견딜 수 있다.

**(2)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그가 발견하는 모든 죄에 대항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 중대하든 미묘하든, 드러난 외적인 죄이든, 또는 영혼에 관련한 죄이든 대항한다.** 그러므로 시편기자는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시 119:128)라고 고백한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불신앙, 다양한 자기 행위들과 공로들, 그리고 지배적인 우상들에 대항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투쟁은 지독한 큰 죄악에 국한될 뿐, 모든 알려진 죄에 대항하지는 않는다. 즉, 사형 선고로 마치게 될 심각한 어떤 한 두 가지 욕정 같은 것이나 그와 관련된 죄악들에 대항한다. 이처럼 위선자가 이런 투쟁을 하는 이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본성적인 적대감에서 투쟁하는 것과는 달리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죄의 뿌리를 뽑고, 그 열매의 나무를 제거하는, 죄 죽이기와 죄 멸절에 전념한다(갈5:24).** 그 투쟁은 죄를 박멸하려는 것으로써 성화와도 맞물린다. 이 새로운 속성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한 칼을 내려놓을 수 없다. 이 투쟁은 이생에서 다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칼을 떨어뜨리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 14).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지 않으며 단지 힘들게 하거나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몇몇 정욕을 억누르기 위해서만 노력한다.

(4)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그의 삶을 거룩한 여정이 되도록 하는데 성공한다. 비록 많은 넘어짐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가 죽 삶을 달려가는 주된 특징이다(요 3:9, 10). 그래서 그는 사도의 고귀한 증언을 가진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후 1:12).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간다.

(5)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은혜로운 특징을 지닌 새로운 의지와 과거의 부패한 성향 사이에 있다. 부패한 성향의 군림은 이미 무너졌지만 남은 세력들이 여전히 신자를 괴롭게 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그러나 위선자의 투쟁은 그의 의지와 그의 부분적으로 각성된 양심 사이에 있다. 그 양심은 부패한 의지에 대항하여 투쟁하지만 거룩한 법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지옥불 때문에 대항하는 정도다. 아니면, 기껏해야, 약간의 의지적 성향과 부패한 성향의 지배 사이에 투쟁이 있을 수 있다.

~~~~~

나는 나의 종교적 가식 때문에 비참을 느낀다. 나는 얼마나 자주 “육체의 쇼”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이 평가 받기를 열망하는지. 신앙으로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위선을 저질렀는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인상을 전달하고,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 더 내 안에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자부심과 독선이 나를 흔들었는지. 그리고 나는 때때로 강단에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한 그런 죄도 지었다. 하나님 대신 회중의 귀에 기도하고, 내 영혼이 묶였을 때 자유로운 척하였으며, 내가 느끼지 못한 것들과 나 자신도 다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필자는 나병환자의 자리로 가서, 그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하는 이유는 많다. 너무나 많다. — 아더 핑크

## 8. 만일 내 안에서 위선을 발견한다면?

저자: 찰스 스펀전 (1834-1892)

역자: 조상철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요일3:20).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에게 고백하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위선을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찾아와 시험하소서. 나의 길을 살피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4)라고 말하자. 나는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기독교인이라면 그는 늘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주님, 비록 제가 보기에 타당하고 밝아 보이는 전망과 생각들이 단지 꿈이나 환상에 불과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밝혀져 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저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소서. 오직 진실만을 알게 하소서. 저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소서." 아무런 꾸밈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자.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신을 믿지 말자.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스며드는 질투와 의심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자. 그런 다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붙들고, 죄인들의 구주를 새롭게 받아들여 우리의 어려움들을 끝내자.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의심이 생길 때,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풀리지 않는 매듭을 잘라내어 풀었던 것처럼 그 의심을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해결한다. "양심아, 네가 말하길,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사탄아, 너는 '네 믿음은 망상이고, 네 경험은 허구이고, 네 일은 거짓말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 맞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반론하지 않겠다. 나는 그 문제를 끝낼 것이다. 나는 성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그것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악마도 그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복음이 죄인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를 믿는 자는 책망 받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 내가 이전에 그를 믿었던 적이 없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믿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허물은 없어진다! 주님, 이제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이 순간부터 앞으로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기도하는, 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이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우리의 삶을 멈추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지속하고 싶다면, 기도해야 한다. 주여,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의 권능과 예수의 피의 공로를 통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